

† 마데레스는 케자라는 뜻의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레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구원은 우리의 확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임을 믿기에
인간의 정함을 근거로
확인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온 명분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최 혼자 잘난 것처럼 하지
않고 함께한 형제를 돌아보며
변약한 형제의 짐을 함께
지면서 진리의 길로
나아가합니다.

이별이 서럽지 않은 이유

신윤식

만남이 기쁜 것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이별이 슬픈 것은
그와 함께 하지 못함이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는 볼 수 없고
함께 앉아 먹고 마실 수 없어
깊은 아쉬움으로 속울음 삼키며
당신을 보냅니다.

마음을 싸하게 하는
이별 때문에
저 속 가슴 울림소리 들으며
당신을 보냅니다.

이제 만남의 기쁨은
기억의 한 조각되어 자리하고
지금은 이별의 아픔만을 감지하며
당신을 보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지만
그래도 다시 함께 할
그 곳으로 가셨으니
지금의 이별이
마냥 서럽지 않은 것입니다.

(박신자 사모님 소천 소식을 듣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2.9.16

발행호수 제20권 38호

종교 개혁자인 루터가 주장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루터의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기독교, 특히 장로교회가 주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주장과는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루터가 주장했던 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당연시한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신자의 신앙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교회의 대표자의 자리에 있는 사제가 교인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권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교회의 권위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성경에만 권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오직 성경만이 권위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의 신앙을 판단하며 규정하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교인들에게 성경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며 은연중에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목사의 권위 아래 붙들어 놓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교인들만이 아니라 목사에게도 해당됩니다. 즉 목사 자신도 성경에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지 성경을 내세워서 교인들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주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은혜와 함께 인간의 공로, 즉 행함 또한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인간의 공로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사실만을 내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라는 말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공로를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현대 교회는 여기에서도 벗어나 있습니

주일오전설교
눅 6:39-49

열매로 아니

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복의 근거로 인간의 행함을 내세우고, 누구의 행함이 더 나은지를 비교하며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현실입니다.

‘오직 믿음’ 또한 신자가 의로운 자로 여김 받는 근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 또한 카톨릭 교회가 행함을 근거로 해서 의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반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직 믿음이 옳습니까? 그렇다면 행함을 근거로 의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에 대해 옳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간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 삶이 변화 된다면 분명 그 행함 또한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오직 믿음’에 동의하면서도 행함을 배제하지 못하고 믿음과 연결시키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말을 근거로 하지만 야고보서가 말한 행함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행함의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 은혜, 믿음을 말하면서도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겉질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신자의 행함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즉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신자라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온 마음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둔 믿음으로 산다면 분명 그 삶은 교회 안에서 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모범을 보이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즉 43절의 말씀처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행위가 신앙 규정의 절대적인 규범과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도외시키고 행위에 기준을 둬서 인해서 비판과 헤아림이 자리하게 되고, 41절의 말씀처럼 자신은 보지 않고 타인의 허물에만 집중하는 양상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맹인은 인도를 받아야 할 사람

이지 남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남을 인도하려면 반드시 가는 길, 가야 할 길을 알아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맹인은 길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눅 4:18절에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눈 먼 자를 보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으며, 여기서 눈 먼 자는 당시 유대인들, 그것도 유대교 율법주의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눈 먼 자, 즉 맹인은 단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응하게 된 은혜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어떠한지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오심이기 때문에 분명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분명 남달랐습니다. 그들만큼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에게서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고 자연히 자신은 선하다는 생각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함을 강조한다거나 흔히 말하는 실천적 삶으로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불의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는 것이 되니까 아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인 됨에 대해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누군가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불타는 인간이 율법 또한 자기 의와 공로를 이루는 도구로 이용해 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자신들을 선생으로 여

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며 더욱 세분화 된 조항까지 만들어 내면서 실천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든 유대 백성이든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에 갇힌 신앙이 길을 가게 된다면 결국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구분합니다. 지키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를 비판하게 되고 율법을 기준으로 타인을 해아립니다. 하지만 은혜는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거룩한 자로 여김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졌다고 선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선생과 제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거룩은 인간의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든 신자는 은혜 앞에서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목사는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돕는 위치에 있을 뿐이기에 특별히 목사의 믿음이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틀 안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제자와 선생이라는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선생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서 목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 도구의 위치에 있는 것이지 선생으로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모두가 온전한 자로 존재한다면 당연히 선생과 제자라는 구분은 없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생으로 자처하고자 한다면 선생은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우수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우수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실천적인 삶이 더 강했고 우수했기 때문에 선생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로 여기십니다.

인간의 속성은 자신에게는 항상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너 때문에’ 라는 말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한 관대함으로 인해 들보가 들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티, 즉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판과 해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는 말씀을 보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는 자가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말은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의 들보를 본다고 해도 그것을 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눈의 들보를 빼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눈의 티를 빼겠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눈의 들보를 보지도 못하고 뺄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저주에 갇힌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으로만 말할 뿐이지 속마음으로까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관찮게 살아온 삶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43절에 보면 좋은 나무 못된 나무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못된 나무입니까? 설마 자신을 좋은 나무라고 여기시는 분은 없겠지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못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의가 되고 공로가 될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지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질 가능성은 좋은 나무인 예수님에게 가지로 붙어 있을 경우뿐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며 따라서 가지에 지나지 않은 우리의 의도 공로도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 눈의 들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서는 비판과 해아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함께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향한 감사함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이며, 그 같은 열매는 그 마음에 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 악으로 가득한 본래의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열매가 있는가?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는가?’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피게 되면 결국 좋은 열매, 선한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게 되면 나의 행위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행하심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이 나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였다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만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한 행함입니다.

그렇게 보면 49절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타락이 부딪치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는 말씀은 단순히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행함도 의가 되지 못하기에 결국 무너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신자라면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나오고 맺어지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자연히 나의 행위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심만 부각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성경의 중심 정신이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83편을 읽어 보면 사랑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듯 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83편이 원수를 저주하고 보복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 5: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원수를 저주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는 못한다고 해도 어쨌든 저주의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원수에 대한 저주와 보복을 담고 있는 듯 한 내용은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대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지는 면도 있게 됩니다. 내용대로 해석하자면 83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원수에 대해 보복해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오우설교

시 83:1-18

침묵하지 마소서

(87강 8.19일 설교)

그런데 여러분은 원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까? 아니 그보다도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아마 미워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원수로 여기는 사람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대개 원수라고 하면 자신에게 큰 해를 입힌 사람을 생각합니다. 가족을 죽였다거나 자신을 무너뜨린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83편의 기도를 하고 있는 아삽에게 원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13절의 **“나의 하나님이며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라는 말씀을 보면 아삽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검불과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고 합니다. 검불과 지푸라기는 약한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날립니다. 즉 가볍고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삽이 말하는 원수를 힘 있는 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강자가 아삽의 가족을 죽이고 해를 입힌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원수에 대한 보복은 그를 아예 처참하게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4,15절을 보면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수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원수는 죽이고 싶은 존재인데 그런 원수가 검불과 지푸라기처럼 되고 주의 폭풍에 두려워하는 것으로 성이 차겠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83편의 원수는 감정적 차원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삽이 말한 원수는 누구이고 그들이 행한 악은 무엇일까요? 3,4절을 보시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간계를 꾀하면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원수가 행한 악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면 원수로 거론된 나라가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앗수르입니다. 모두가 이방 나라입니다. 즉 이방 나라가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려고 간계를 꾸미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장에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삽이 말하는 원수는 이방인이고, 이방인이 행하는 악은 하나님의 목장인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소유로 취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동맹하여 힘을 모은 것입니다(5절).

이처럼 이방인이 원수라면 이들에 대한 가장 좋은 보복은 이방인이 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하면 되는데 아삽은 검불,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고 하고 두렵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16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라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는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7,18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17절의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라는 구절을 보면 이방인을 멸망시켜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복을 위한 기도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결론은 원수들이 여호와라는 주 만 지존자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삽은 결국 원수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83편은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1절의 **“하나님이며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며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라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멸망에 대해 잠잠하지 말아 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속히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일에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삽의 기도는 교회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신자의 관계에서도 서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는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삽의 기도 안에서 생각해 보면 신자는 누구든 하나님께 권능을 드러내셔서 자신의 수치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 또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나 또한 나의 수치를 알고 주의 이름을 찾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자가 자신이 주의 권능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지존자임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누군가

를 대한다면 ‘너는 안된다’ 라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야 말로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난 것임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으로만 되어진 일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완악한 마음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알게 하시고 주가 전능자이심을 깨닫게 하신 권능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이들과 지 하나님의 권능에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힘을 모아 이스라엘을 치면서 하나님의 목장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목장입니다. 시 79:13절에서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자의 관계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의 관계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처럼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기에 이스라엘을 치려는 이방인과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삽이 언급하는 원수의 범주에 우리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 답을 아삽의 기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검불이고 지푸라기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의 수치를 알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세상의 힘을 가진 자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검불과 지푸라기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수치를 깨달으며 주의 이름을 찾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도 마시고 조용하지도 마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의 속에서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인 간에게 소유욕이 있습니다. 이 소유욕은 아마 세상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소유욕을 가진 것이 인간인데 원하는 것을 뜻대로 소유할 수 없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신의 소유욕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을 찾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이방인의 신을 끌어 들인 이유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유다의 죄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유다의 죄에 대해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장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계속 강조하시고 경고하셨던 말씀의 그 중심이 우상 문제였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우상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같은 유다의 태도는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만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알고 버리면 되는데 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우상을 버리는 문제는 지금의 우리가 불상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여러분께 불상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신자로서 불상을 집에 둔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상을 집에 두니 병이 낫고 하는 일이 잘 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불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기는 싫지만 그래도 복을 가져다주는 불상을 선뜻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껴안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신의 힘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며 이방 나라와 같은 부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앞서 말한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자신들도 껴안고 있으면 그들과 같은 부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상에서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향한 소유욕이 얼마나 강한지 1절에 보면 유다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수요일설교
렘 17:1-11

유다의 죄

(45강 8.22일 설교)

제단 뿔에 새겨 졌다고 말합니다. 금강석 철필은 아주 강하고 단단한 철필을 뜻합니다. 그러한 철필로 죄가 새겨 졌다면 그 죄는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유다의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이방 신을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자신들의 도무지 지워질 수 없는 깊은 죄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다만 복을 위해서 아세라를 섬기는 일만 생각합니다. 신을 열심히 섬겨서 복 받는 일에만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당초 하나님의 약속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왜 자신들을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마음은 오로지 신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일에만 향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대 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 말합니다. 이유는 나의 죄를 알아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에 마음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복에만 마음을 둡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보게 되고 주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것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버림 받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 받을 자입니다.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부하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완악한 인간이 어떻게 복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진심으로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 복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구할 자격이 있다고도 하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건짐 받은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소유욕으로 가득한 우리를 저주의 사람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덮으시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신자가 진심으로 이러한 사랑을 안다면 세상만을 바라보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하며 하나님은 이러한 신자의 기도에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핑계 대며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가치한 것으로 짓밟는 것일 뿐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은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없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왔고 기업으로 받았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유다는 자신들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 유다 백성다운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방인을 바라보며 ‘저들처럼 살게 해 달라’ 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세라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착각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도 결국에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내 것 삼기 위해 신을 찾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11절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해 복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44장
 교 독 : 4(시15편)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606장
 성 경 : 눅 6:39-49
 말 씀 : 열매로 아나니(27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39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3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3시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04장
 기 도 : 김윤점 집사
 찬 송 : 375장
 성 경 : 시 87:1-7
 말 씀 : 거기서 났다(91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87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49강)

■ 교회소식 ■

- 9.17일(월) 오후 7시에 서울 대방교회당에서 재건총회가 개최됩니다.
- 박신자 사모님께서 13일 0시 10분쯤 소천하시어 15일(토) 부산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은석교회와 함께 하신 분이어서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부름 받으신 것을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끝이 있음을 생각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위에 더욱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장영옥 권사

중국 방문기②

돌아와서 알게 된 것이지만 등반이를 바로 하고 테이블을 원위치 하고 창문 덮개를 열어 놓아야 하는 모든 것이 비행기가 비상 착륙했을 때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었다. 비행기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목숨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은 안전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설마 내가 탄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겠느냐'는 생각으로 승무원의 방송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다. 마치 지금 평안하다 하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불필요한 말로 여기며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의 세태와 같다고나 할까.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 조금 후에 승무원이 내 앞의 의자에 와 앉는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된 어색함은 순진한(?) 나를 난감한 상황으로 밀어 넣는다. 승무원과 무릎 간격이 약 60센티 정도 밖에 안되는 가까운 거리에 서로를 마주하고 앉아 있으려니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곤란하다. 눈을 앞으로 둘 수도 없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으려니 목이 빠근해진다. 승무원과 대화라도 나누면 좀 나으려만 보통 그런 쪽으로는 켜병이라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쪽을 바라보는 척 하며 슬쩍 승무원을 보니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시선을 창 쪽으로 약간 돌려서 아무렇지 않게 앞을 보고 있다.

나는 결국 아이패드라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낯갓다 싶어 전원을 켜려는 순간 이륙할 때는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떠오른다. '이것도 안되냐' 싶어 승무원에게 '아이패드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사용해도 된단다. 그런데 인터넷이 안되니 별로 할 게 없다. 이어폰을 가져오지 않아서 음악을 들을 수도 없어 할 수 없이 그냥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승무원에게 좌석을 바꿔줘서 고맙다며 사탕을 하나 건네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목사님이 '승무원으로 일한지 얼마나 됐느냐'고 하자 일 년 쯤 됐다고 한다. 목사님이 계속 국제선은 주로 어디를 가느냐고 묻고 나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면서 어색함은 그렇게 해결되었다. 역시 사람 사는 사회에서 대화의 기술은 필요한 것 같은데 나로서는 늘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승무원도 업무를 위해 자리를 뜬다. 창문 밖 바로 밑에는 커다란 비행기 엔진이 보이고 생전 처음 본 하얼빈 공항은 서서히 시야에서 까마득히 멀어진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였는지 밑에는 어스레 구름이 가득 펼쳐지고, 양탄자처럼 깔려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으니 왠지 뛰어 내리면 구름이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서서히 시장기를 느끼고 있는데 드디어 기내식이 나온다. 하얀 쌀밥과 함께 소스에 버무려진 새우튀김이 있었는데 맛은 역시 조금 느끼해서 올 때처럼 고추장에 비벼 먹었다. 그런데 식판에는 빨간 색깔의 조그만 빈 컵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다. 생수가 일회용 컵에 밀봉되어 있었는데 혹시 생수를 따라 먹는 용도인지 아니면 기내식과 함께 서비스 된 주스를 따라 먹는 용도인지 이리저리 생각해 봐도 그 둘 다 웬지 미심쩍다. 그래서 그냥 주스 잔을 그 빈 컵에 넣어 놓고 있었는데 기내식이 끝나갈 무렵 저 앞에서 승무원이 포트를 들고 '커피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다가온다. 그리고 승객들은 빨간 조그만 컵을 내밀며 커피를 받는 것이다. '아 이게 그거'